

신안군, 섬 지역 특화 자치행정 모델 구축 ‘박차’

특별자치군·37개 특례사항 실효성 논의
섬 규제 해소·국회 입법 추진 협력 강화

신안군이 웅진군, 울릉군과 함께 섬 지역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신안군, 웅진군, 울릉군이 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문경복 웅진군수,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한 3개 군 관계 공무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와 ‘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로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신안·웅진·울릉군은 그동안 공항 건설, 먼



김대인(오른쪽) 신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섬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난 16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신안군 제공>

세구역 지정 등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들 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다. 또 각종 규제와 현행 자

치 체계의 한계로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에 세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섬 지역에 최적화된 새로운 자치행정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했

다.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위탁해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법안에 담긴 ‘특별자치군 설치’와 5대 분야(분권·농수산·산업인프라·주

거생활·보건복지) 37개 특례사항이 각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신안군은 섬 지역 국립공원 등의 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를 강조했다.
웅진군과 울릉군은 세 지역의 형편이 다른 점을 감안, 각 지역에 필요한 특례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특별자치군 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군의 회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섬 지역 특화 자치행정모델이 구축돼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안=양훈 기자



최우수상 바하정원(왼쪽)과 우수상 아내의 정원전경. <완도군 제공>

완도군 ‘道 예쁜 정원 콘테스트’ 2관왕

최우수상 바하정원·우수상 아내의 정원

완도군은 18일 “전남도가 주최한 ‘2025년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서 생활권 정원 부문 최우수상과 개인 정원 부문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콘테스트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40개 정원이 참가한 가운데 우수 정원 10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완도군에서는 ‘바하 정원’이 생활권 정원 부문 최우수상, ‘아내의 정원’이 개인 정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바하 정원’은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고 펜션, 카페가 함께 운영되는 복합 공간으로 ‘자연과 교감을 통한 치유’를 철학으로 조성됐다. /완도=윤보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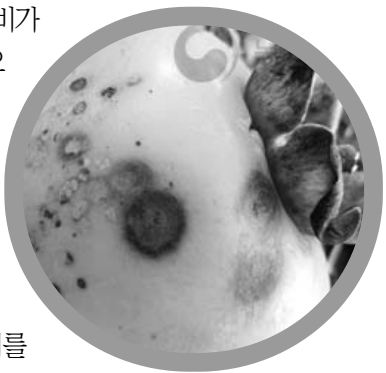
정원에는 다양한 수목은 물론 폭포와 비단잉어가 헤엄치는 연못, 고산수식 모래 정원, 중국 태호석 등 이국적인 요소와 조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아내의 정원’은 10년 전 전원생활을 시작하며 남편이 아내를 위해 손수 조성했으며, 100여종의 꽃이 사계절 내내 피고 저 아름다운 동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숲속 오두막과 장작 화덕, 수영장을 개조한 연못, 텃밭 등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들도 곳곳에 마련됐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수상 정원이 민간 정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군민들의 힐링을 위해 지역에 정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강진 “과수 탄저병 적기 방제 당부”

장마철 이전 매달 1회 이상 살균제 처리

강진군은 18일 “본격 장마철을 앞두고 탄저병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과원관리와 약제 방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과수 탄저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빗물과 바람에 전파되는 특징이 있는 병해로, 감염되면 낙과와 갈색 반점을 일으켜 수확량을 크게 떨어뜨리는 병이다.
특히 지난해 이병된 잔재물이 과수원에 남아 있으면 겨울철 잠복해 있다가 여름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급격히 발병하는 특징이 있어 예방 위주의 방제가 필요하다.
포자 비산시기인 6월 하순 이전부터 예방 방제를 시작해야 하며 한 달에 1번 이상 살균제 처리를 해야 한다. /강진=정영록 기자

또한 비가 연이어 오거나 발병이 확인되면 방제효과가 높은 침투형성 약제를 선정하고 약제 내성이 나올 것을 대비해 계통이 다른 약제를 교차 사용하는 것이 좋다.
최영아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단감 탄저병은 발병 후에는 방제약 효과가 떨어지고 피해가 큰 만큼 반드시 예방 방제로 관리해 달라”며 “약제를 적기에 살포해 피해를 줄여 달라”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목포시, 불법 현수막 난립...단속 미흡 ‘지적’

지정계시대 외 게첩...시민 불만 ‘고조’
市 “단속반 운영 불구 인력 부족” 해명

목포시내 불법 현수막 게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단속이 미흡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시정 홍보용 현수막의 적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목포시 내에는 정치인, 단체, 목포시 등에서 지정계시대 이외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 이외에 게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특히 단속 주체인 목포시조차 지정계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게첩, 스스로 형평성을 잃고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A정치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는 현수막을 개인 명의로 게첩 중이며, 여러 동사무소에서는 통장 모집 현수막, 공적 기능단체에서는 자율방범대원 모집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B단체는 행사 홍보 현수막을, C공공기관은 인사 초청 강연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이들 모두 지정계시대 이외 장소에 설치돼 불법에 해당되지만 단속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목포시는 올해 건설과 단속 인원 4명(평일 2명·주말 2명)을 투입해 원도심과 신도심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개 반으로 나눠 단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현수막 ▲7천689건 ▲벽보

2천778건 ▲전단지 499건 ▲애어라이트 154건을 정비했으며, 3건에는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 시민은 “합천군수는 명절 인사를 지정계시대에 게첩하며 모범을 보이고 있지만, 목포시는 시장부터 정치 초년생까지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어 일벌백계 차원의 단속이 필요하다”며 “약질 민원 대응만 설치, 단속 인력 한시적 증원 등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적은 인력으로 평일·주말 단속반을 운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과도한 정치 현수막 난립과 반복적 불법 현수막 게첩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철거 시 폭언 등으로 담당자의 고충이 크며, 인력 부족과 9급 중심 인력구성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명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진도 ‘운림산림욕장 수국 공원’ 야간 개장

조명 설치 등 오후 10시까지

진도 운림산림욕장 내 수국 공원(사진)이 야간 개장에 방문객들의 여름밤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은 18일 “오는 8월31일까지 운림산림욕장 내 수국 공원을 야간 개장한다”고 밝혔다.
개장 첫날인 18일에는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운림 수국의 밤’을 주제로 퓨전국악과 통기타 라이브가 어우러진 작은 음악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음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진도읍 공설운동장에서 사천리로 이어지는 임도의 차량을 통제해 주민 안전을 도모했다.
진도군은 지난해 운림산림욕장 내 약 3ha(9천평) 면적에 2만 본의 수국을 식재했으며, 현재 수국이 아름답게 개화 중이다. 야간 개장 기간에는 조명이 설치돼 방문객들이 오후 10시까지



수국을 감상할 수 있다.
진도군은 수국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 안내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진도=박세권 기자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무안군은 18일 “오는 7월25일까지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무안군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기업,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무안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해 우편·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무안군 청 기획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총 4개 분야로, 군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단 세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건의, 단순 민원, 이미 제출된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수상자는 오는 9월 중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무안=김상호 기자

영광 ‘햇빛·바람연금 군민참여’ 구체화

시행규칙 제정...내달 6일까지 의견 접수

영광군은 18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은 조례로 위임된 군민참여 수익 배분 기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기본소득에 준하는 개발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주요 내용은 발전설비 인접 지역 군민을 우대하는 참여 유형과 지역별 투자비율 차등 기준, 설비 용량별 개발이익 공유 최소 행정구역 범위, 발전사업자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담았다.
또한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한 협동조합 선정을 위한 군민조합과 예비군민조합의 조합원 구성 세부 요건,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지정 기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영광군은 오는 7월6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하나로 오는 30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시행규칙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제도와 군민조합 지정 제도를 구체화해 발전사업 군민참여를 통한 개발이익 공유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